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788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0월 15일 (음력 9월 5일) 월요일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수질 최악 영산강 준설방안 폐기

바닷물 드나들게 한다

전남발전硏 '영산강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결과

기형 물고기가 잡힐 만큼 수질이 나빠진 영산호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산강 하구둑을 부분 개방,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수질 개선의 또 다른 대책으로 거론됐던 준설방안은 비용문제로 사실상 폐기됐다. 〈관련기사 3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뢰로 '영산호 수질개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전남발전연구원 김종일 박사팀은 15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역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해수 유통'으로 가닥이 잡힌 이번 용역결과는 영산호 수질개선 방안을 둘러싼 수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수질오염과 관련된 환경정책에 일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용역팀은 보고서에서 하구둑이 영산강과 바다를 갈라놓은 지 26년이 지남에 따라 영산호의 수질이 4~5급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더 이상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영산강 하구둑에 설치된 8개의 배수갑문 가운데 일부를 개방, 바닷물을 유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역팀은 또 해수 유통 시기에 대해서는 영산강으로 흘러들어온 바닷물과, 바다로 흘러든 민물이 각각의 생태계나 연안 양식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도록 최소한 2~3년의 시뮬레이션(모의 실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용역팀은 또 영산호의 물은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당수 지점에서 4~5급수까지 수질이 악화됐으며 실제로 최근 기형 물고기가 잇따라 잡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 상태로는 영산호의 수질환경 목표등급인 2등급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도는 최근 영산호에서 잡힌 기형 물고기를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용역팀은 해수유통과 함께 수질개선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영산강 준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무려 1조 원 이상 투입돼야 하는데다, 준설토 처리장의 악취 등을 둘러싼 각종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영산호=영산강지구 농업종합계발계획 2단계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건설됐으며, 길이 4천350m·최대 높이 20m·저수량 2억 5천만t에 이른다. 영산강 방조제는 무안군 삼향면 옥암리와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사이를 가로막은 토석제(흙으로 쌓은 제방)로, 지난 1978년 착공해 1981년 12월에 완공됐다.

14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에서 내년도 개최지인 전남선수단이 '녹색의 땅 전남에서 만나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전남체전은 내년 10월 10일부터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지역 18개 시·군 경기장에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 여수에서 만납시다"

전국체전 폐막…경기·서울 이어 광주 3위

광주에서 펼쳐진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내년 10월 여수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7일간 열전의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8·14·22·23면〉

14일 오후 6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은 환송사를 통해 "142만 시민 여러분의 높은 민주시민의식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1등 체전을 만들어 주셨다"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폐회사에서 "선수들은 체전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세계에 떨쳐달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체전 개최지인 전남의 박준영 도지사에게 대회기가 전달된 뒤 폐회선언과 함께 7일동안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밝혀온 성화가 꺼졌다.

이번 체전에서는 경기도가 총 7만9천430점을 얻어 서울(6만5천3점)의 추격을 따돌리고 종합우승을 해 대회 6연패를 이룩했다. 개최지 광주(5만2천312점)는 광주·전남 분리 이후 최고 성적인 3위를 차지했으며 전남(3만5천112점)은 12위를 차지했다.

다관왕은 박태환 등 수영 남고부 5관왕 2명을 비롯해 4관왕 4명, 3관왕 41명, 2관왕 146명 등 모두 193명이 배출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당 대선후보 오늘 확정

경선 완료…정동영 굳히기·손학규 뒤집기 관심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전이 14일 8개 미실시 지역에 대한 '원샷 투표'를 끝으로 한 달간의 레이스를 마쳤다.

신당은 15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선후보 지명대회를 열어 지역 선거인단 및 3차 휴대전화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 대선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대선까지 남은 65일 동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간 치열한 본선 레이스가 막을 올리게 됐다.

신당은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전북 등 8개 지역 147개 투표소에서 지역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 결과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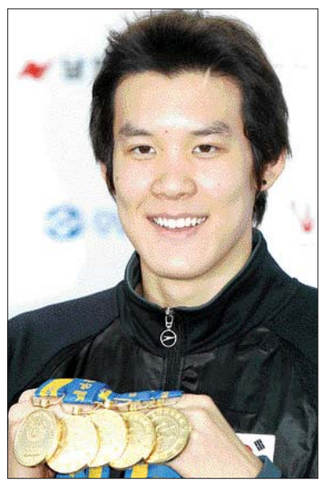
이날 실시된 지역 선거인단 투표 가운데 선관위 위탁분은 곧바로 개표작업을 거쳐 결과가 봉인된 채 보관되고 당 자체 관리분은 개표없이 밀봉된 채 영등포 한반도전략연구원(옛 열린우리당 당사)에 보관됐다가 15일 오전 10시부터 개표에 들어간다.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는 지역 선거인단 및 휴대전화 유효투표를 합한 숫자의 10%에 해당하는 비율로 반영된다. 신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13만3천725명을 대상으로 3차 휴대전화 투표를 계속했고 투표율은 75% 안팎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정동영 후보는 저마다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고 누적득표 3위인 이해찬 후보는 선거인단의 선택과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우림학원 창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세계를 향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ac.kr



"광주의 영광! 베이징까지"

수영 5관왕…MVP 박태환

"광주 체전의 영광을 베이징 올림픽까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14일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수영의 박태환(18·경기고)은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 광주팬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 자유형 100m에서 한국신기록(49초32)을 수립하는 등 5관왕을 거머쥐면서 지난 2005년 제86회 울산체전에 이어 두번째 MVP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오전 염주수영장에서 열린 혼계영 400m에서 박태환은 1천여 관중의 환호 속에 대회신기록(3분50초15)을 달성, 다섯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고 MVP 자리를 결정지었다.

박태환은 "'스타트'를 보완해 베이징 올림픽 400m, 1500m 금메달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체육대회 및 부고인의 밤
♠2007년 조대부고인의 밤♠
■일시 : 2007.10.20(토) 18:30
■장소 : 메리어트 웨딩홀
(지하철 농성역 7번 출구)
☎062)366-7766
♠2007년 총동창회 친선체육대회♠
■일시 : 2007. 10. 21(일) 10:00
■장소 : 모교 운동장
☎062)224-1461, 062)232-6897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신 우 식